

일본, 농약 판매 4개월동안 17% 감소

일 본농약공업회에 따르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개월동안 일본의 농약 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84,803만엔(\$913만달러)으로 16.7% 하락했고, 판매량은 48,133톤으로 25.5%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주요 작물별(벼, 과채류 및 발작물, 기타 등) 농약 판매량과 판매액은 모두 하락했다. 이중 수도용 농약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판매량은 13,904톤으로 33.4% 떨어졌다. 판매액은 ¥25,990만엔(\$280만달러)으로 24.6% 하락했다.

일본 농약 판매현황(2009. 10~2010. 1)

작물	판매량 (tonnes)	증감 (%)	판매액 ¥(\$)million	증감 (%)
벼	13,904	-33.4	25,990(289)	-24.6
과실류	6,728	-29.5	13,909(155)	-18.4
채소류(발작물)	22,375	-19.6	34,230(380)	-10.6
산림 및 비농업용	4,122	-16.1	8,818(98)	-9.4
기타	1,003	-30.6	1,855(21)	-17.4
총계	48,132	-25.5	84,802(943)	-16.7

출처 : 일본농약공업회(Agrow/ No 594/ June 25th 2010)

판매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채소류 및 발작물의 판매량은 22,375톤으로 19.6% 떨어졌고, 판매액은 ¥34,230만엔(\$369만달러)으로 10.6% 하락했다.

미쯔이, 2010 농약 판매 11% 하락

미쯔이 농약사업부인, Mitsui Chemicals Agro의 2010년 3월 현재 농약 판매액은 전년대비 약 11% 하락한 ¥40,000만엔(\$4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주요인은 일부 수도의 병해충과 과일 및 차에 응애 발생이 저조해 살충제 판매 감소에 따른 것이다. 해외 시장 판매액은 전년도 ¥6,000만엔(\$66만달러)과 비교 시 ¥5,000만엔(\$55만달러)을 밀돌았다. 살충제는 전체 농약 판매액의 34%를 차지

하며, 제초제와 살균제는 각각 33%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품목은 살충제 디노테퓨란(dinotefuron)과 에토펜프록스(etofenprox) 그리고 살비제인 밀베멕틴(milbemectin)이다.

신규 품목인 '애니키'(Aniki : Lepimectin)는 지난 2월에 등록됐고, 살균제 펜티오피라드(penthiopyrad)는 듀폰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 등록을 추진중에 있다.

스미토모, 2010년 엔화강세에 따른 매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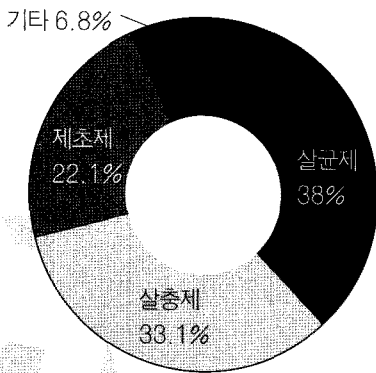
2010년 3월 현재 스미토모화학의 농약 판매액은 엔화 강세에 따른 역효과로 ¥131,335만엔(\$1,459만달러) 9.1% 하락을 했으나, 미국시장내 제초제 판매 호전으로 일부 회복됐다.

스미토모의 농약 판매액은 사료, 첨가제 및 비료를 포함한 농업화학분야의 62.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2009년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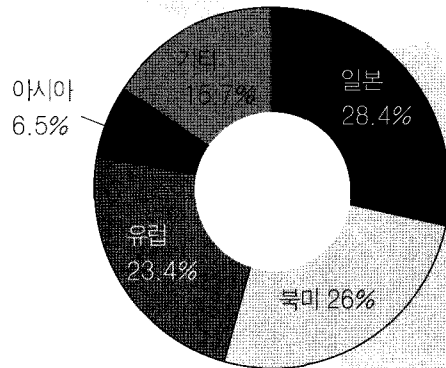
65% 보다는 낮아졌다. 전체 판매액은 ¥211,546만엔(\$2,350만달러)로 4.8% 하락했다.

하지만 스미토모는 올해 초 Nufarm의 지분을 20% 인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에 스미토모의 판매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0스미토모 약제별 판매현황



2010스미토모 지역별 판매현황



닛산, 농약판매 4% 하락, 운영수익 9.1% 하락

닛산 케미컬 농약 판매액은 2010년 3월말 현재 글루포시네이트(glyphosate) 판매 저조 등으로 ¥33,800만엔(\$371만달러) 4.2% 하락했다.

수출은 ¥5,100만엔(\$56만달러)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했다. 닛산에서 농약과

비료는 농업화학분야 전체 8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판매액은 ¥37,914만엔(\$416만달러)으로 6% 하락했고, 운영수익은 ¥4,431만엔(\$49만달러)으로 9.1%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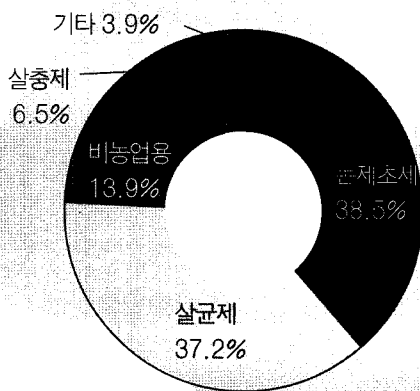
SDS Biotech, 2009 농약 판매 완만함

SDS Biotech사의 2009년도 농약 판매액은 ¥12,388만엔(\$135만달러)로 전년대비 0.5%의 낮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높은 판매가격이 판매액을 증가시켰으나 이는 불안정한 환율 변동의 부정적

여파로 상쇄됐다. 판매량은 소폭 하락했으나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했다.

수출은 2008년보다 3.1% 상승한 ¥4,068만엔(\$44만달러)인 반면, 내수 판매액은 ¥8,320만엔(\$91만달러)으로 2.3% 감소했다.

2010SDS 약제별 판매현황



SDS는 지난 2008년에 신규 2개 품목을 일본시장에 출시했다. 살충제 'Azami Buster WP(acri nathrin)'는 오이,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차, 딸기 그리고 과실류 등에 사용되며, 한국 LG생명과학에서 개발된 플루세토설퓨론(flucetosulfuron)은 잔디에 사용하는 제초제로 'BroadCare'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

중국, 2010 살충제 사용량 감소

중국의 올해 살충제 사용량은 감소 추세로, 일부 성분은 40%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중국 국립농업신문 'The AgriGoods Herald' 지는 보도했다. 2010년 첫 5개월 동안 중국 전 지역의 살충제 사용량은 10~15% 하락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서부지역은 1월부터 5월 사이 혹독한 가뭄을 겪었으며, 북부지역은 같은 기간 추운 날씨로 해충 피해가 감소했는데

특히 벼가 심했다. 살충제는 벼와 면화에 사용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으나 밀의 경우 지난해 만큼 사용됐다. 반면 과채류의 살충제 사용량은 증가했다.

벼의 살충제는 약 40% 정도 감소했는데,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폭심(phoxim), 그리고 뷰프로페진(buprofezin)의 경우 더 많이 감소했다.

지난 3월 중국작물보호산업협회는 병해충 발생이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더 많

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방제하기 위한 302,700톤의 농약성분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수지역(Jiangsu province)의 올해 농약 사용량은 300톤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광시지역 식물보호부(Guangxi province plant protection station)에 의하면 지난해 농약 사용량은 7~13% 정도 하락했으며 살충제 사용량

은 2008년 첫 5개월과 2009년을 각각 비교 시 15%와 20% 감소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감소원인으로는 기상상황 이외 여러 객관적인 요인으로 장수지역의 생물농약 방제 증가와 농약 살포 작업자의 교육을 통한 전문화로 이들이 사용량이 적은 수입 완제품(살충제)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FMC, 구미아이의 플루티아아세트 인수

FMC는 구미아이(kumiai) 자회사인 이시하라(ihara)사로부터 제초제 플루티아세트(fluthiacet)를 인수했다. FMC는 지난 2008년 구미아이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이미 미국시장내에 옥수수와 콩을 적용대상으로 한 'Cadet'를 판매하고 있었다. 현재 FMC는 'Cadet'의 적용 대상 작물을 확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

할 계획에 있다. 우선시 되는 주요시장은 캐나다, 브라질 및 멕시코이다. 'Cadet'은 단제와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 등 다른 유효성분과의 혼합제로 사용하는 발아 후 광엽제초제이다.

이 품목은 글라이포세이트에 저항성이 발현된 광엽잡초에 효과적이라고 FMC는 강조하고 있다.

브라질, 농약 빈 용기류 재활용 활성화

브라질 농약 빈 용기류 재활용 기구인 'inpEV' (National Institute for Processing Empty Container)에 따르면 2010년 첫 4개월 동안 농약 빈 용기류의 재활용 수량이 10,000톤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량보다 20%를 초과한 것으로, 계획에 대한 목표달성 비율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빠른 것으로, 재활용에 대한 노력이 브라질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브라질 공식 뉴스 'Agencia Brasil'은 보도했다. Y